

다산포럼



주 윤 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신설된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요 업무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리다. 국가의 공간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자리다. 그렇다면 이 막중한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이렇게 답했다. GPT는 “국가의 미래를 현재의 유혹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숫자를 다루는 윤리적 전략가”라 답했고, 제미니이는 “숫자라는 권력 뒤에 숨지 않는 책임감”을, 클로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꼽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의 덕목으로 공렴(公廉)을 강조했다. 공렴은 공정과 청렴으로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일하고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행정을 펴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우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

나라 공간과 미래 비전, 누가 맡아야 하는가

라, 오전백삼십 만 국민의 공간을 책임지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에, 정치인의 덕목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깝다.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보좌관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사적 심부름, 위장 미혼을 통한 아파트 편법 청약과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 의혹, 조부의 혼장을 앞세운 자녀의 사회기여 입학 논란까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쏟아졌다. 더욱이 내란 직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탄핵 소추가 불법”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조차 능수능란하게 갈아 끼우는 모습이었다. 이 분 앞에 인공지능이 알려준 ‘윤리적 전략가’라는 장관의 기준도, ‘공렴, 책임윤리’란 공직자나 정치인의 기준도 모두 무색하다.

우리는 내란을 통해 한 광인의 일탈적 행위만이 아니라 영혼 없는 관료들의 조직화된 무책임이 사회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목도했다. 12·3 내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법기술자에 국가를 맡겨 충분히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숫자에만 능한 경제기술자만으로는 나라의 리더십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엄격한 윤리, 청렴, 공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의 방향성, 공간을 책임질 수 있다.

한국의 공직 신뢰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자본, 공직 신뢰가 낮으면 사람들은 장기 이익,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이익 추구, 각자도생의 사회 속에서 파편화된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 구성원들의 법률과 규범 준수 등이 강화되어야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편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해 온 사람,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적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공간과 나라의 방향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간다면, 국민들이 국가와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나 아파트 청약접수 올리기 위한 편법부터 어떻게든 자식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 경제수장의 윤리적 해이, 편법과 특권으로 사익을 최대로 추구해온 삶의 궤적은, 개인의 흠결만이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 다시 만난 세계에서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자신들의 본질적 책무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위해 내란을 몰리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는지 초심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 인사가 보수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한 정치술이었다면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란으로 뒤물어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패한 인사이다. 이런 인물을 청문회까지 올린 것 자체가 추위에 떨며 내란세력과 싸웠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기 고



최 성 희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

장애인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 무엇이라 부를까? 장애인 예술 작품, 장애 예술 작품이라 부른다. 그냥 예술 작품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명명법에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왜 본인의 작품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있어야 하는지 불만이다. 나도 불만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불만이 반갑다. 왜냐면 언제나 늘 존재하고 있었으나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목소리는 입안에서 중얼대는 독백이 아니라, 혼자 외치는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서로가 마주 보고 같이 이야기 하는 대화의 장에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재했던 목소리는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전시 ‘N개의 발화: 비대칭 감각에 대하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며 새로운 소통의 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광주교육대가 한양대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진행한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의 수료전시였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불만은 전시 중 진행되었던 라운드 테이블 ‘장애 예술 교육의 방향과 과제: 장애 예술 or 장애인 예술 or 예술?’ 토론 중 나왔던 참여 작가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장애 예술교육

의견이었다.

14명의 신진 작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광주교육대에서 전문 창작자로 발돋움 하기 위해 전문 예술 교육 과정을 밟았고 그 모든 과정을 수료전시에 담아내었다. 2025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는 25년 6월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예비 작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5명의 예비 신진 작가들을 선발해 6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나는 이 과정의 연구책임자로 지난해 봄 다년간 동일 사업을 진행했던 한양대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수도권 외 지역으로 는 처음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을 광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미술교육 전공자로 장애 예술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2015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전시 ‘코끼리 주름 펼치다’, ‘까리까리코끼리’를 공동 큐레이팅한 이래 장애 예술 교육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접근성 확장을 위한 전시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의 전시교육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광주 지역의 포용적 사회를 향한 갈망과 갈증 또한 느낄 수 있었기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인 대상 전문 예술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애 예술인 육성을 통한 포용적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장애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예술 교육’을 통해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과정을 함께한 신진 작가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장애 스펙트럼과 가진 개성도 다양하다. 기존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다양성보다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목표에 따라 하나로 정해진 교육을 하기 쉬운데,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 과정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습자들과 함께 시작했기에 처음부터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참여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멘토 예술가들, 그리고 다른 동료 작가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예술 언어와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크리틱 중심의 예술 창작 교육과정과 전문가 비평, 신체 표현 워크샵, 예술현장 체험, 현대미술 특강, 선배 작가 특강으로 구성된 특별 교육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장애 접근성 확장을 위해 공간, 의사소통, 이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무언가가 새롭게 움트고 모양을 갖추고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 있을 때는 그것의 형체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 열심히 달렸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기에 무엇을 했는지 아직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술 향유자의 자리에만 머물러야 했던 장애 예술작가들이 창작자로서 자기 결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예술교육을 대학 및 지역과의 연계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장애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온도에 맞추어 공론의 장에서 들리게 ‘발화’하는 주제로 설 수 있었다는 점이 반갑다. 더불어 우리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렌다.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지평이 그 만큼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기 고

어서와, 인문 특성화 수업은 처음이지?



이 정 이
광주 동구 인문도시정책과장

겨울방학을 맞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광주 동구인문학당에는 아이들의 한자 독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옥채 아랫목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함께 고사성어를 읽는데 그 첫 번째 독음이 ‘애지중지(愛之重之)’였다.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우는 모습을 보며 ‘그(그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인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이를 키울 때 “쥐면 꺾질까, 불면 날아갈까” 할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인문의 출발점일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동구는 3월부터 중창중학교 신입생들과 함께 ‘인문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는 공·사립을 포함한 모두 6개의 중학교가 있다. 중학교 입학은 졸업하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주소지 인근 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구도심, 주택단지 인접 여부, 특정 체육종목 육성 등 학교가 지닌 배경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기도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선 자연스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동구는 이러한 불안을 덜고,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문성을 함께 키워보자는 목표 아래 인문특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 중창중 예비소집에 참석한 88명의 예비 신입생들에게 사업을 소개했다. “인문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옆의 친구·가족·이웃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인문”이라는 말을 건네자 들뜨고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차 집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동구는 2026년 인문특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중창중학교에서 이어온 독서교육에 동구청의 시민 대상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다 새롭게 다양한 인문학 적 시도를 이어간다.

먼저 ‘전교생 독서기록장 쓰기’, ‘온·오프라인 독서 동아리 책톡’, ‘매 시간 시작 5분 독서’ 등 기존 독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어 시간에 ‘생활글쓰기 수업’을 편성해 매주 목요일 두 차례, 총 10회 운영한다. 또 음악,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해 보는 ‘미래의 꿈 청소년 인문강좌’를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6월경에는 매년 봄 동구가 주민·전문가의 설문조사와 투표, 심의를 거쳐 선포하는 ‘올해의 책’ 청소년 부문 도서를 중심으로 작가들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학생들이 도서를 미리 읽고 학교 안

캠핑장에서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비평쟁 토론을 자유롭게 펼쳐보는 시간이다.

또한 학기 초 안내를 통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독서동아리 ‘책톡’ 등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떠나는 ‘국내 문학기행’도 준비한다. 충북 옥천 정지용문학관 방문과 윤동주 시인이 머물렀던 일본 교토·후쿠오카 일대를 중심으로 ‘해외 인문기행’도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질문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속제나 입시 공부가 아닌 자유학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생각의 힘, 따뜻한 마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채워가며 학교생활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실 ‘인문특성화’라는 말 자체에는 다소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인문이라 함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를 ‘특성화’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기본적인 인문이 우리 일상과 사회에서 이제는 특별히 고민하고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만큼 중창중에서 중학생활의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될 소중한 아이들이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인문특성화 사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더욱 필요한 인문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중창중뿐 아니라 동구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인문 감수성이 풍부한 학교로 자리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애지중지’ 돌보고 살펴갈 것이다.

社 說

계절근로자 브로커 국내외 공조로 근절하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시즌이 돌아왔지만 이들을 등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부터 불법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법은 국가·지자체·전문기관을 제외한 어떤 주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알선·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불법 인력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자격 요건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중개하면서 고품을 뜯는 브로커들이 해외 모집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검거와 처벌이 국내 활동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갈취 행위는 모두 국내 브로커에 의해서였다. 9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선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40여명이 3억원을 갈취당했고 1월에는 완도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들이 1인당 알선 수수료로 400여만원을 뜯겼는데 개정법 시행에도 이런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국내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2만 1000여명이 전남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남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가장 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일손 공백은 물론 국가 이미지 훼손도 크다.

개정 법안이 브로커들의 국내 활동 차단에만 치중해 있어 해외 모집 단계부터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대다수 집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검거와 처벌이 국내 활동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갈취 행위는 모두 국내 브로커에 의해서였다. 9월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교복 대란’ 자초해서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네 곳이 신입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구매처를 한 곳으로 선정해 논란이다. 보문고·수완고·명진고·진흥고가 논란에 휩싸인 학교다. 이들 학교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각각 A와 B 업체에서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사실상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인데 문제는 구매 기간이 나올에 불과해 4개 학교 신입생 11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서 구매 대란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현장을 찾은 학부모 가운데는 “반호표도 없이 5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치수도 재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북새통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간다.

학생 1인당 교복과 체육복 구매 비용이 33만여원으로 도합 3억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배발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 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특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빚어졌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교복 수치를 측정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업체를 찾아가게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별로 방문 일자를 분산시키는 융통성도 보이지 않았으니 학교측은 무슨 할 말이 있었는가. 물량 몰아주기로 인한 특혜 논란 외에 개학식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 요구에 맞추려면 제작 기간이 40일은 있어야 하는데 촉박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특혜 논란을 낳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특혜 의혹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귀찮으니 한 곳에 맡겼다”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작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는 할머니/ 섰던 차랑들 뺑뺑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나가 목청껏 야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땀에 급한 거여/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된 중요한 일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취직 못한 막내 놈 법해주는 거/ 자식 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여?/….’ 〈밥해주려 간다·유안진〉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밥심’으로 사는 게 한국인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밥, 쌀이 빠지질 않는다. 생일이면 환할밥에 미역국을 먹는다. 죽여서도 먹는다. 저승에서 굶지 않기를 기원하며 망자 입에 쌀 한 술 넣어준다. 저승사자에게 사자밥을 대접하며 제사상에 정성껏 차린 밥을 올린다. 세금도 쌀로 바쳤다.

그 쌀이, 그 밥이 달라진 지 오래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양곡 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 전년(55.8kg) 대비 1.9kg(3.4%)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1984년(130.1kg) 이후 늘어난 적이 없

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147.7g(평균)으로 전년도(152.9g)에 견줘 5.2g 감소했다. 하루에 즉석밥(210g) 한 개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쯤되면 주식은 커녕, ‘간식’도 아니다.

쌀 수요는 주는데 쌀값은 오른다는 불만도 들린다.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22만 9028원으로 1년만에 22.2% 올랐다. 2년 전 역대 최저 수준인 17만원대까지 폭락하자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46만 t 이 넘는 쌀을 사들이거나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은 이후부터 요즘세다. 정부는 격리키로 했던 쌀 10만t을 보류하겠다고 최근 방침을 변경했다.

농민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비료값·농자재값·인건비 등 폭등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밥 한 공기 분량인 쌀 100g에 300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먹는 소비자들도 모를 리 없다. 쌀값은 이제야 올랐는데 다른 것이 더 올라서 걱정인거다. 농민 마음을 헤아리면서 소비자 마음을 살피는 일,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 |
| |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FA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